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엠바고 : 행사 종료 후 보도 가능(대외협력비서관실 별도 공지) 배포 : 2023년 6월 23일(금)

윤석열 대통령,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참석

- 한-베트남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방향 제시 -
- 양국 경제인 600여 명 참석, 111건의 MOU도 체결 -
- 대통령, 새로운 30년을 위해 무역의 역동성 회복과 다양한 분야로
수평적 협업관계 심화 강조 -
- 글로벌 어젠다 공동 대응,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확대도 중점 추진-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3일(금) 오후에 개최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1992년 수교 이후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30년을 위한 파트너십 발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서울과 하노이의 물리적 거리는 3천km가 넘지만, 양국은 무역, 투자는 물론 인적교류, 문화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중요한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며 모범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 해준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양국간 무역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하면서, “소비

재, 플랜트,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수평적 협업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양국은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국가들로, 함께 협력하여 자유무역체제를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고 말하고, 탄소중립 등 글로벌 어젠다에서도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 간 교류의 중요성과 관련해, 어제(현지시간 22일) 열린 ‘영테크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와 ‘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행사를 언급하며, “양국 미래 세대간 교류 확대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동행한 경제사절단을 포함하여 한국 정부와 기업인 300여 명, 베트남 정부 및 기업인 300여 명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습니다. 특히, 베트남 정부에서는 총리를 비롯하여 기획투자부, 산업무역부, 농업농촌개발부, 외교부 등 13개 부처의 장·차관이 총출동하여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금일 포럼 계기에 양국 기업·기관간 구체적인 협력 행보도 이어졌습니다. 방산, 소비재, 헬스케어, 식품 등 교역 분야에서 54건의 MOU, 전기차, 첨단산업 등과 관련한 28건의 기술협력 MOU, 핵심광물, 온실가스 감축 등 공급망·미래협력을 위한 29건의 MOU 등 역대 최대인 총 111건의 MOU가 체결되어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금번에 체결된 MOU가 구체적인 협력성으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